



# 백제 무왕시기 익산지역의 방어체계

The Defense System in Iksan Area during  
the Period of King Mu in Baekje

## 이 문 헝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I. 머리말

### II. 무왕시기(재위 600~641) 전쟁기사 검토

### III. 익산지역 관방유적 분포 현황과 특징

### IV. 익산 금마지역 도성의 범위와 방어체계

1. 금마지역 도성의 범위
2. 금마지역의 방어체계

### V. 맷음말

# 국문 요약

익산 금마지역은 『三國史記』「地理志」에 의하면 백제 금마저(金馬渚)로 기록되어 있으며, 『三國遺事』「武王條」에는 백제 30대 무왕에 대한 설화가 전해져 오고 있다. 또한 『觀世音應驗記』에는 국내 역사서에 기록되지 않은 ‘익산(금마) 천도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단편적인 기록과는 달리 금마지역 일대에는 백제 무왕시기 왕도(王都)의 핵심시설인 왕궁과 국가(왕실)사찰, 왕릉, 귀방 등 중요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본 논고는 익산지역의 유적 가운데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관방유적을 통하여 익산 금마지역의 방어체계를 살펴본 글이다.

Ⅱ 장에서는 무왕(武王) 재위 42년간(600~641) 주변국과의 대외관계 중 단연 주목되는 신라와의 전쟁기사(13회)를 『三國史記』「百濟本紀」 기록을 통해 검토하였다.

Ⅲ 장에서는 익산지역 관방유적의 분포 현황과 특징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익산 관내 고대 관방유적은 금강하구 연안의 함라산 일대와 미륵산을 포함한 금남정맥의 산악지역으로 양분되어 집중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최근에 발굴조사된 익산토성(오금산성)의 경우 출토된 유물로 볼 때 왕궁의 ‘피난성’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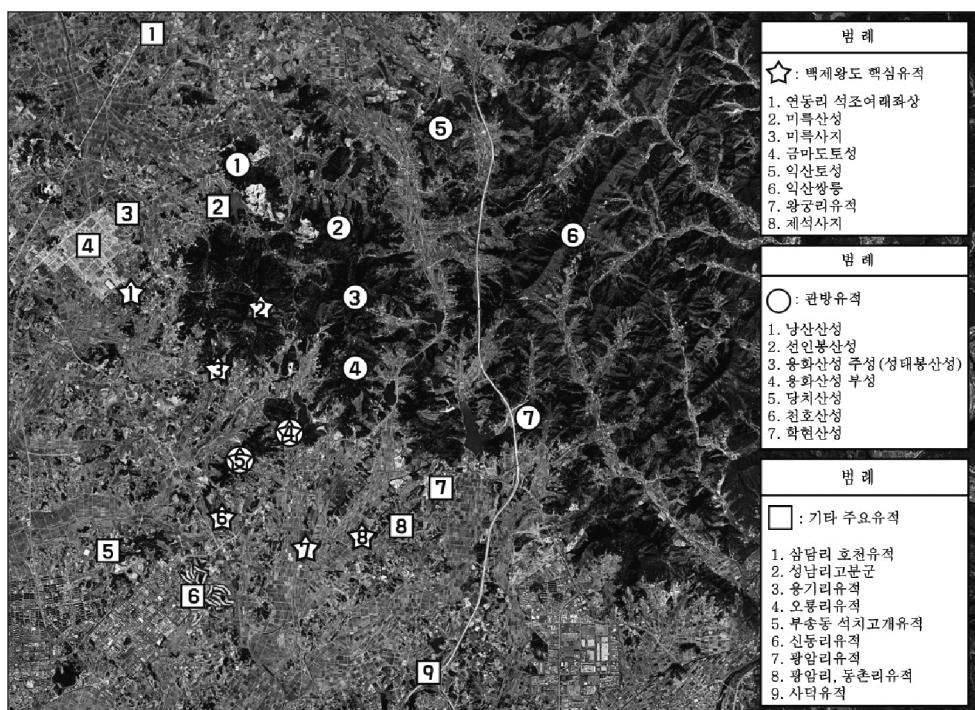
Ⅳ 장에서는 익산 금마지역의 산성 분포와 왕궁리유적 주변 하천의 위치 등을 종합해 볼 때 익산지역의 방어는 ‘왕궁’과 ‘미륵사’ 중심의 이원적(二元的) 방어체계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다. 즉 왕이 거쳐하는 왕궁 방어체계와 국찰(國刹) 미륵사의 방어체계이다. 이상의 이원적 방어체계는 면밀한 계획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주변의 자연지형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극대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왕궁리유적과 미륵사에 이르는 사이의 공간적 범위(금마면소재지 일대)를 금원(禁園)으로 설정하여 국가 차원의 일정한 통제를 실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왕궁이 축조된 왕궁리유적은 전통의 입지 조건에 부합하는 하천을 적극 활용하였으며, 미륵사는 동쪽 산맥을 활용하여 소망과 교통로 상에 산성을 배치하여 방어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와 같은 이원적 방어체계는 단절되지 않고 상호 보완적으로 연결시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연결점은 최근 발굴조사에서 부여의 관북리유적-부·소산성(왕궁-피난성)에서 출토된 바 있는 ‘수부(首府)’명 인장와, ‘북사(北舍)’명 토기편이 출토된 익산토성(오금산성)이다. 익산토성 역시 왕궁리유적의 피난성으로 추정되며 토성의 북쪽으로는 미륵사와 연결되는 교통로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왕궁의 북쪽일대를 금원지역으로 설정하여 일반인들의 출입을 차단시킴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피난성인 익산토성과 연결시키고 미륵사를 가시권에 둘로서 이원적인 익산지역 방어체계의 효과를 극대화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제어 :**무왕, 익산지역, 방어체계, 왕궁리유적, 미륵사지(미륵산)

## I . 머리말

백제사에 있어 익산 금마지역이 천연에 부각된 계기는 1970년 『觀世音應驗記』<sup>1)</sup>가 알려지면서이다. 이 『관세음응험기』에는 국내 역사서에 기록되지 않은 ‘익산(금마) 천도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이미 1957년부터 익산을 주목해 온 황수영(1973: 9~16)은 『관세음응험기』의 기록과 제석사지와의 연관성을 들어 ‘익산 천도설’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관세음응험기』 ‘백제 무광왕’기사의 사료적 접근이 시도되면서 익산 천도설은 더욱 가시화되었다(牧田諦亮 1976). 이를 계기로 익산지역은 백제사 연구의 뜨거운 쟁점지역으로 부각되어 익산지역의 정체성에 대해 천도설을 비롯하여 복도설, 별도설, 이궁설, 경영설 등 다양한 견해가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2020년 현재 미륵사지, 왕궁리유적, 제석사지, 쌍릉 등 백제 왕도 유적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그림 1] 익산 금마지역 주요 유적 분포도

1) 『관세음응험기』는 중국 육조시대의 관음신앙 사례집으로 10세기경 편찬된 것이다. 이 문서는 1953년 일본 교토의 천태종 사찰인 청련원(青蓮院)에서 발견되었으며, 1970년 일본 교토대학 牧田諦亮(마키타 타이료)에 의해 『六朝古淹觀世音應驗記の研究』가 출간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관세음응험기」 말미에 백제 관련자료 2건(‘百濟沙門發正’, ‘百濟武廣王’) 중 ‘백제 무광왕’조에 익산 천도 관련 기록이 있다.

발굴조사를 통해 '익산 천도'에 더욱 다가서고 있는 모습이다.

익산 금마지역은 『三國史記』「地理志」에 의하면 백제 금마저(金馬渚)로 기록되어 있으며, 『三國遺事』「武王條」에는 백제 30대 무왕에 대한 설화가 전해져 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단편적인 기록과는 달리 익산 금마지역 일대에는 백제 무왕시기 왕도(王都)의 핵심시설인 왕궁과 국가(왕실)사찰, 왕릉, 관방 등 중요유적이 분포하고 있으며, 해당유적의 발굴조사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러나 익산 왕도와 연관된 방어체계, 즉 관방유적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익산토성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자료는 백제 시기 익산지역의 방어 체계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본 논고에서는 익산지역의 유적 가운데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관방유적을 통하여 백제 무왕시기의 방어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무왕 재위 (600~641) 시의 상황을 전해주는 『삼국사기』의 전쟁기사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익산지역에 분포하는 관방유적 현황을 정리,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왕도 핵심시설이 분포한 금마지역의 무왕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되는 관방유적을 왕 궁리유적과 미륵사(지) 혹은 미륵산을 중심으로 하는 이원적 방어체계로 구분하고 그 특징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백제 왕도 익산의 정체성 확립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Ⅱ. 무왕시기(재위 600~641) 전쟁기사 검토<sup>2)</sup>

무왕(武王)의 재위 42년간 주변국과의 대외관계를 『三國史記』「百濟本紀」 기록을 통해 살펴보면 중국 수나라 3회, 당나라에 14회 사신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무왕 재위 기간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주변국, 단연 신라와 13회에 걸친 전쟁기사이다.<sup>3)</sup> 이 중 무왕의 선제공격이 11회이며, 장소 역시 대부분 신라의 영토에서 치러졌다. 이러한 무왕의 대신라 강경책, 옛 가야지역에 대한 집요한 공격은 마침내 의자왕 2년 (642)에 이르러 큰 전과를 거둔다.

2) 해석은 충청남도역사문화원에서 2008년 백제문화사대계 자료집 성의 일환으로 발간된 『百濟史資料譜註集』을 참고하였다.

3) 신라와 달리 고구려와는 무왕 8년(607) 1차례 전쟁기사가 보인다. 이도 고구려에 의한 일방적인 침공이다.

익산지역이 문헌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 역시 신라와의 전쟁과 관련해서이다. 『三國史記』「新羅本紀」 진지왕 3년(558), 백제 위덕왕 25년(558) 지금의 익산 낭산으로 추정되는 알야산성(鴟也山城)을 신라가 침공한 기사이다. 당시 기록으로 보아 위덕왕(554~597) 시기 대 신라전에 있어 이미 익산지역이 군사적으로 중요시 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무왕시기 신라와의 전쟁기사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A.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제4, 진지왕

① 二年(557) 冬十月 百濟侵西邊州郡 命伊浪世宗出帥 擊破之於一善北 (중략)

겨울 10월에 백제가 서쪽 변방 주·군을 침범하므로, 伊浪 世宗에 명하여 군사를 출동하여 一善(경북 선산) 북쪽에서 깨뜨렸다.

② 三年(558) 秋七月 與百濟戰也山城

가을 7월 알야산성(익산 낭산)을 침공하였다.

B. 『삼국사기』 권27, 「백제본기」 제5, 무왕

① 三年(602) 秋八月 王出兵圍新羅阿莫山城(一名母山城) 羅王真平遣精騎數千拒戰之 我兵失利而還 新羅築小砦·畏石·泉山·襄岑四城 侵逼我疆境 王怒令佐平解離帥 步騎四萬 進攻其四城 (생략)

가을 8월에 왕이 군사를 내어 신라의 아막성(남원 운봉; 일명 모산성)을 포위하였다. 신라 왕 真平이 정예 기병 수천명을 보내 막아 싸우니 우리 군사가 이득을 얻지 못하고 돌아왔다. 신라가 小砦·畏石·泉山·襄岑城 등 4성을 쌓고 우리나라 경계 가까이 쳐들어 왔다. 왕이 노하여 좌평 해수에게 명하여 보병과 기병 4만명을 이끌고 나아가 4성을 공격하게 하였다.

② 六年(605) 春二月 築角山城 秋八月 新羅侵東鄙.

봄 2월에 각산성(임실 성미산성)을 쌓았다. 가을 팔월에 신라가 동쪽 변경을 쳐들어 왔다.

③ 十二年(611) 冬十月 围新羅桓岑城 殺城主讚德 滅其城.

겨울 10월 신라의 가잠성(안성 죽산)을 포위하여 城主 賛德을 죽이고 성을 함락하였다.

④ 十七年(616) 冬十月 命達率旨奇領兵八千 攻新羅母山城

겨울 10월에 達率 苗奇에게 명하여 군사 8천을 거느리고 신라의 모산성(남원 운봉)을 공격하였다.

⑤十九年(618) 新羅將軍邊品等來攻假岑城復之 奚論戰死.

신라 장군 边品 등이 가잠성(안성 죽산)을 공격해 와서 이를 되찾았는데, 奚論이 전사하였다.

⑥二十四年(623) 秋 遣兵侵新羅勒弩縣.

가을 군사를 보내 신라의 늑노현(충북 괴산)을 공격하였다.

⑦二十五年(624) 冬十月 攻新羅速含·櫻岑·歧岑·烽岑·旗懸·冗棚等六城取之.

겨울 10월에 신라 속함성(경남 함양) · 앵잠성(경남 함양) · 기잠성(경남 합천) · 봉잠성(미상) · 기현성(미상) · 용책성(경남 산청) 등 6성을 공격하여 빼앗았다.

⑧二十七年(626) 秋八月 遣兵攻新羅王在城 執城主東所殺之.

가을 8월, 군사를 보내 신라의 王在城(미상)을 공격하여 城主 東所를 붙잡아 죽였다.

⑨二十八年(627) 秋七月 王命將軍沙乞拔新羅西鄙二城 虜男女三百餘口 王欲復新羅  
侵奪地分 大舉兵出 屯於熊津 羅王眞平聞之 遣使告急於唐 王聞之 乃止.

가을 7월에 왕은 沙乞에게 명령하여 신라의 서쪽 변경 2성을 빼앗고 남녀 300여 명을 사로 잡았다. 왕은 신라가 침입해 빼앗은 땅을 되찾으려 크게 군사를 일으켜 熊津에 주둔하였다. 신라 王眞平이 이를 듣고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위급함을 고하니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그만두었다.

⑩二十九年(628) 春二月 遣兵攻新羅假岑城 不克而還.

봄 2월 군사를 보내 신라의 가잠성(안성 죽산)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돌아왔다.

⑪三十三年(632) 春正月 封元子義慈爲泰子 (중략) 秋七月 發兵伐新羅 不利 王田于生  
草之原

봄 정월에 맏아들 義慈를 태자로 책봉하였다. (중략) 가을 7월 군사를 일으켜 신라를 쳤으나 이롭지 못하였다. 왕은 생초원<sup>4)</sup>에서 사냥하였다.

⑫三十四年(633) 秋八月 遣將攻新羅西谷城 十三日拔之.

가을 8월에 장수를 보내 신라의 서곡성(경북 고령 흑온 거창)을 공격하여 13일만에

4) 현재 행정 지명으로 경상남도 산청군에 '생초(生草)'라는 지명을 가진 곳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삼국사기』 기록과 한자까지도 동일하다. 그러나 산청군의 생초면은 1914년 생림-초곡-고읍-모읍면 4개 면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생림'과 '초곡'의 앞 글자를 취합하여 생긴 지명이다.

빼앗았다.

⑬ 三十七年(636) 夏五月 王命將軍于召 虜甲士五百 往襲新羅獨山城 (생략)

여름 5월, 장군 于召에게 명하여 甲士 500명을 이끌고 가 신라의 독산성(경북 성주  
독로산성)을 습격하게 하였다. (생략)

⑭ 四十二年(641) 春三月 王薨 諡曰武

봄 3월, 왕이 돌아가시며 시호를 武라 하였다.

### C.『삼국사기』권28,「백제본기」제6, 의자왕

① 二年(642) 秋七月 王親帥兵侵新羅 下獮猴等四十餘城 八月 遣將軍允忠領兵一萬 攻  
新羅大耶城 城主品釋與妻子出降 允忠盡殺之 斬其首傳之王都 生獲男女一千餘人  
分居國四州縣 留兵守其城

가을 7월에 왕이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신라를 쳐서 미후성 등 40여 성을 빼앗았다.  
8월에 장군 允忠을 보내 군사 1만 명을 이끌고 신라의 大耶城<sup>5)</sup>(경남 합천)을 공격  
하였다. 城主 品釋이 처자와 함께 나와 항복하자 윤충은 모두 죽이고 그 머리를 베  
어 왕도에 전달하였다. 남녀 1천여 명을 사로잡아 나라 서쪽의 주·현에 나누어 살  
게 하고, 군사를 남겨두어 그 성을 지키게 하였다.

② 三年(643) 冬十一月 王與高句麗和親 謀欲取新羅黨項城 以塞入朝之路 遂發兵攻之  
羅王德曼遣使請救於唐 王聞之罷兵。

겨울 11월에 왕은 고구려와 화친하고 신라의 당항성(경기 화성 남양만)을 빼앗아  
당나라로 가는 길을 막고자 군대를 보내 공격하니 신라 왕 德曼(선택여왕)이 당나  
라에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하였다. 왕이 이를 듣고 군대를 철수하였다.

위 사료 A-① · ② 기록은 『삼국사기』「신라본기」의 기록이다. 577년 백제가 신라  
의 서쪽 변방을 공격하자 신라가 지금의 경북 선산 일대에서 백제 군사를 물리친 사  
실과 이듬해인 578년 지금 익산 낭산 일대의 알야산성을 침공한 기사이다. 557년 백  
제의 신라 공격은 「백제본기」 위덕왕 24년조에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전술하  
였듯이 익산지역이 문현에 처음 등장하는 기록이며, 당시 신라와의 전쟁에 있어 익산

5) 대야성은 경남 합천군 합천리 취적산(해발 90m) 쟁봉의 정상부 일대에 축조된 포곡식 석축성이다. 백두대간의  
육십령과 팔령치를 넘어 가야지역을 거쳐 신라지역으로 진출하는 길목인 동시에 경남 서부지역을 통괄하는 전  
략적 요충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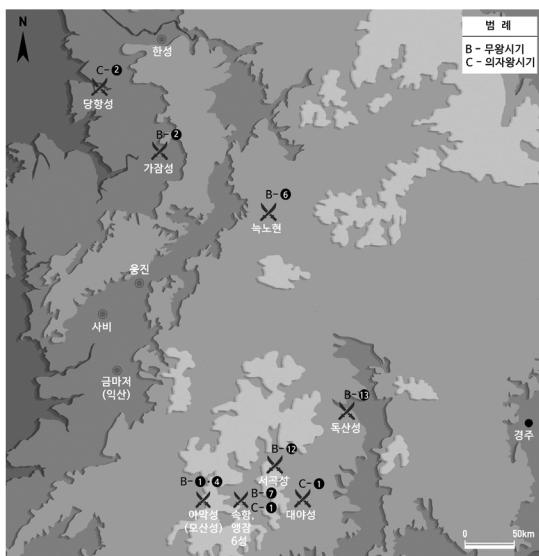
지역의 중요성을 유추할 수 있는 기사이다.

무왕은 즉위 3년(602) 아막성(전북 남원)을 시작으로 약 40여 년의 재위기간 동안 신라와 모두 13차례 걸쳐 전쟁을 치른다. 특히 B-①의 사료로 볼 때 4만 대군을 동원할 정도로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확보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무왕의 대 신라전쟁에 있어 주요 공략지역을 보면 크게 두 지역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한 곳은 현재 경기 안성으로 비정되는 가잠성(假岑城)의 백제 옛 북쪽 지역과 다른 한 곳은 전북 남원 일대 등의 옛 가야지역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료상의 기록과 현재 학계에서 비정하고 있는 지역을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무왕시기 신라와의 전쟁 시기와 그 위치

사료	시기	사료 상 위치	현 추정 지역	비고
B-①	3년(602)	아막산성(모산성)	전북 남원 운봉 일대	패전
B-③	12년(611)	가잠성	경기 안성 죽산 일대	승전
B-④	17년(616)	모산성	전북 남원 운봉 일대	.
B-⑤	19년(618)	가잠성	경기 안성 죽산 일대	패전
B-⑥	24년(623)	늑노현	충북 괴산 일대	.
B-⑦	25년(624)	속함 등 6성	경남 함양 · 합천 · 산청 일대	승전
B-⑩	29년(628)	가잠성	경기 안성 죽산 일대	패전
B-⑫	34년(633)	서곡성	경북 고령 흑운 거창 일대	승전
B-⑬	37년(636)	독산성	경북 성주 독로산성	.



[그림 2] 백제 무왕의 對新羅戰(국립의산박물관 2020: 168 수정 인용)

무왕이 모두 3차례(611 · 618 · 628)에 걸쳐 지속적인 공격을 감행한 가잠성, 오늘날 경기 안성 죽산 일대는 신라가 제라동맹(성왕 29년(551))을 파기하면서 새로 이 설치한 신주(新州), 즉 지금의 경기도 광주 · 이천 일대로 진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교통로상의 요충지이다. 이와 같은 무왕의 가잠성 공격은 신라의 대중 교통로 차단을 목적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며(김병남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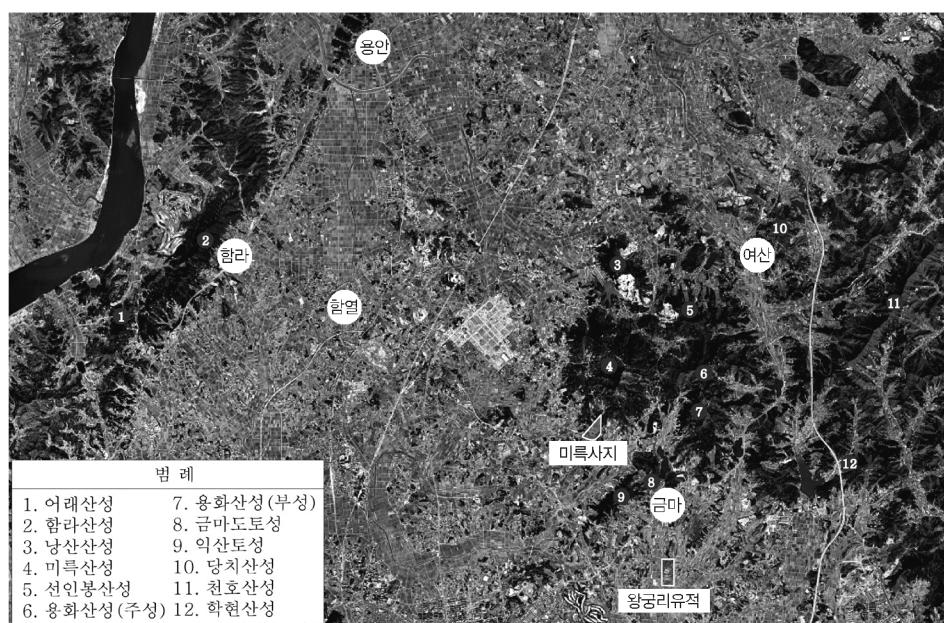
59~64; 문안식 2006: 387~388), 충북 괴산으로 추정하는 늑노현 또한 안성지역과 인접하고 있어 동일한 목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08: 218).

이와 달리 백두대간을 넘어 신라의 서남부지역, 즉 옛 가야지역에 대한 전쟁은 직접적인 영토 확보 전쟁으로 인식된다. 이는 현재 전북 남원을 비롯하여 경남 함양·합천, 경북 고령·성주 등으로 추정되는 넓은 지역에 걸쳐 여러 성들을 다양하게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왕의 옛 가야지역의 진출 교두보로서 익산지역을 주목한 견해도 있다(유원재 1999: 118; 김주성 2009: 266~268).

결국 무왕의 집요한 對 신라 공격은 C-①의 사료 기록에서 알 수 있듯 의자왕 2년 (642) 미후성(獮猴城) 등 40여 성과 대야성을 함락하여 신라 진출의 통로를 확보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백제의 이러한 신라에 대한 강경한 군사정책은 신라의 대당외교로 인해 그 한계를 실감한다.

### III. 익산지역 관방유적 분포 현황과 특징

익산지역 관내에 분포하고 있는 고대 관방유적은 모두 12개소로 그 분포 현황은



[그림 3] 익산지역 관내 관방유적 분포도(이문형 2016:126 수정 인용)

[그림 3]과 같다. 그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금강 하구 연안의 함라산(해발 240m) 일대와 관내 동쪽 미륵산(해발 430m)을 포함한 금남정맥의 산악지역으로 양분되어 집중 분포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이문형 2016: 141).

이러한 분포 현황은 익산지역의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통로상의 요충지와 조망(視界)을 고려한 결과이다. 특히 금강연안을 따라 북에서 남으로 형성된 야산에는 익산 관내의 어래산성-함라산성을 비롯하여 군산지역의 도청산성-관원산성이 선상으로 연결되어 축조되어 있다. 이는 서해에서 금강을 통해 내륙으로 출입하는 수로상의 요충지로 백제 산성의 입지조건인 수륙교통의 편리함에 부합되는 특징이다(심정보 2004: 115). 이와 같은 특징은 금마지역 일대에 분포하는 관방유적에서도 확인되는 동일한 현상으로 특히 미륵사지(미륵산)를 중심으로 방사상으로 둘러싸고 있는 분포상이 확인되는데(이문형 2016: 141~142) 이는 후술하고자 한다.

익산 관내지역에 분포하는 관방유적의 주요 특징을 제시하면 아래 [표 2]와 같다.<sup>6)</sup>

이들 관방유적 가운데 익산토성-금마도토성-낭산산성-미륵산성 등은 (시)발굴조사가 실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관방유적에 대한 조사 역시 성벽의 단면조사나 문지, 혹은 특정 시설물에 편중된 한정적인 조사임을 감안할 때 해당 유적에 전반적인 성격과 세부 축조기법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설정이다. 다만 최근 기존의 보고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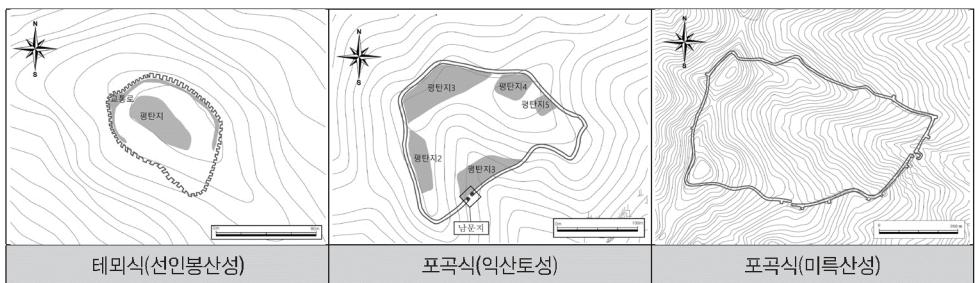
[표 2] 익산지역 관방유적의 주요 특징(이문형 2016: 140 수정 인용)

연번	명칭	해발(m)	형식	축성재료	축조기법	규모(m)	고저차(m)	축조시기
1	어래산성	180.4	포곡식	토석溷축	내탁/협축	485	48	.
2	함라산성	240.5	포곡식	석축	내탁	1,011	70	.
3	낭산산성	162	포곡식	토석溷축	토축:판축 석축:협축	870	75	백제
4	미륵산성	428	포곡식	석축	내탁/협축	1,776	212	통일신라
5	선인봉산성	239	테뫼식	석축	내탁	213	12	.
6	용화산성(주성)	340	포곡식	석축	내탁/협축	435	28	.
7	용화산성(부성)	342	테뫼식	석축	내탁	189	16	.
8	금마 도토성	87	테뫼식	토축	판축	484	23	백제
9	익산토성	125	포곡식	토축/석축	판축 내탁/협축	690	40	백제
10	당치산성	185	포곡식	석축	내탁	683	49	.
11	천호산성	500	포곡식	석축	내탁/협축	669	45	.
12	학현산성	214	포곡식	석축	내탁/협축	700	67	.

6) 이밖에도 조선시대 축성된 용안읍성과 용산성이 전하나 현재 그 실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자료를 바탕으로 익산지역 관내 관방유적에 대한 정밀지표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16) 또한 익산토성에 대한 연차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다(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18).

앞에서 제시한 [표 2]를 바탕으로 익산지역 관방유적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지형은 모두 산에 축조된 산성임을 알 수 있다. 가장 낮은 해발 87m 내외의 금마도토성을 비롯하여 해발 500m의 험준한 산정에 축조된 천호산성에 이르기까지 확인되고 있다. 또한 성벽의 통과선이 지나는 지형을 기준으로 형식은 테뫼식과 포곡식으로 양분할 수 있는데 12기 중 9기가 산성 내부에 계곡을 가진 포곡식(包谷式)에 해당된다. 상대적으로 해발 높이와 산성의 형식 사이의 상관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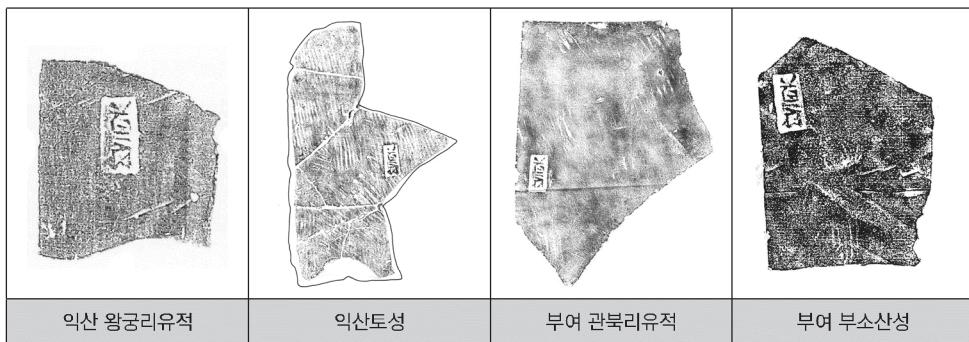


[그림 4] 익산지역 산성의 형식

축조 수법과 축성 재료에 있어서는 발굴조사 미비로 인해 세부적인 축조 수법은 알 수 없으나 일부 조사된 유적과 지표상에서 육안으로 관찰되는 양상으로 보아 대부분의 산성은 석축(石築)으로 추정하고 있다.

규모는 성벽 둘레를 기준으로 크게 세 그룹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둘레 1,000m 이상의 대형으로 미륵산성과 함라산성이 이에 속한다. 두 번째 그룹은 둘레 800~500m 내외 사이의 중형으로 익산지역 관내 산성 대부분이 포함되는데 평균적으로 600m 정도이다. 세 번째 그룹은 둘레 200~100m 내외의 소형으로 선인봉산성과 용화산성(부성)이 이에 해당되는데 모두 테뫼식이다(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16: 222).

한편 익산지역 관내 산성 가운데 (시)발굴조사를 통해 축조 시기가 어느 정도 밝혀진 산성으로는 미륵산성-낭산산성-금마도토성-익산토성 등 4곳에 불과하다. 그러나 기 조사 보고된 정밀지표조사에 의하면 여타 관내에 분포하고 있는 모든 산성에서 백제 시기의 토기편이 수습되어 백제 당시에 축조 혹은 운용되었을 가능성이



[그림 5] 익산 및 부여지역 수부(首府)명 인장와 출토 예(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18)

있다고 판단된다(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16: 222~223).

수차례 발굴조사를 거쳐 문지와 성벽, 그리고 내부건물지가 조사된 미륵산성의 경우 통일신라시대에 축조된 이후 고려~조선시대까지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발굴조사 당시 백제 시기로 편년되는 많은 양의 유물이 수습되어 추후 백제 시기 유구가 확인될 가능성은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 낭산산성을 비롯하여 금마도토성과 익산토성은 백제 시기에 초축된 산성으로 그 개략적인 시기는 6세기 후반~7세기 초반으로 인식하고 있다(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16: 222~223). 특히 최근에 조사된 익산토성의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익산토성 발굴조사 결과 기존에 알려진 토성이 아닌 석축성으로 확인되었으며, 출토유물에서는 부여 관북리유적과 익산 왕궁리유적에서 출토된 ‘首府’ 명 인



[그림 6] 익산 및 부여지역 복사(北柵)명 토기편 출토 예(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18)

장와가 확인되었다. 또한 부여 관북리와 금성산에서 출토된 바 있는 ‘北舍’ 명 토기편도 출토되었다(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18: 48~50). 궁극적으로 익산 왕궁리유적과 익산토성 역시 부여 관북리유적-부소산성의 관계, 즉 ‘왕궁-피난성’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최완규 2018: 135~136).

## IV. 익산 금마지역 도성의 범위와 방어 체계

### 1. 금마지역 도성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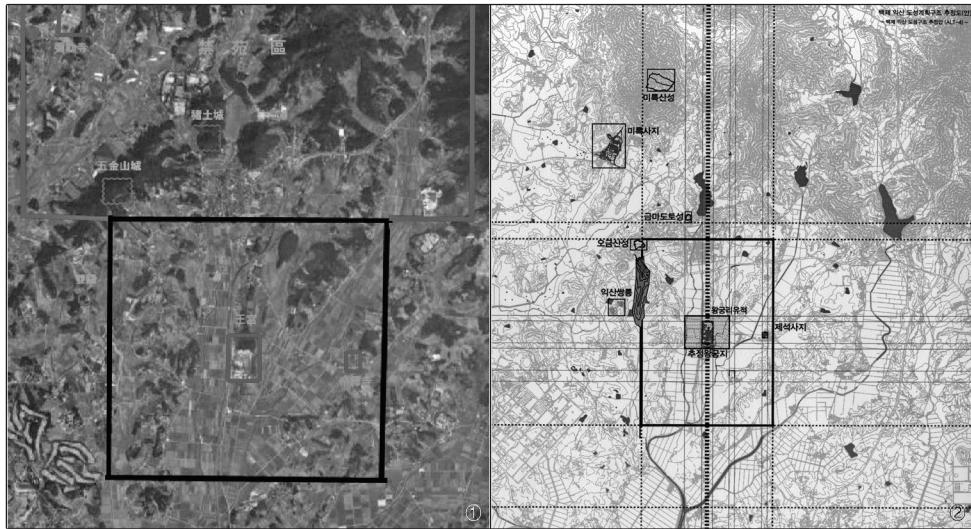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고대 도성의 요건으로 궁성, 사찰, 왕릉, 관방유적 등을 들고 있다. 익산 금마지역에는 궁성인 왕궁리유적을 비롯하여 국가사찰인 미륵사지와 왕실사찰인 제석사지, 그리고 왕릉인 쌍릉과 익산토성으로 대표되는 관방유적까지 고대 왕도(王都)로서의 핵심유적들이 분포하고 있다(그림 1).

현재까지 왕궁리유적을 중심으로 익산도성 범위(영역)에 대해 연구자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익산도성 추정 범위(이신효 2018: 61 수정 인용)

연구자	도성 범위	나성(외곽성)
박방룡 (2010)	동: 제석사지 서: 익산토성-익산쌍릉 남: 왕궁리 우물유적 북: 금마도토성-미륵사지-연동리사지	익산토성 금마도토성 미륵산성
박순발 (2010)	동: 왕궁 동쪽 2km(제석사지 포함) 서: 왕궁 서쪽 2km(쌍릉 제외) 남: 왕궁 남쪽 2km 북: 익산토성-금마도토성, 미륵사 남쪽 후원	축조되지 않았을 가능성
이경찬 (2014)	동: 용화산에서 시대산 연결선 서: 미륵산에서 오금산, 익산 쌍릉 연결 구릉 남: 익산천과 부상천 합류지점(궁장남쪽 2km) 북: 금마산과 시대산 연결선	.
최완규 (2018 · 2019)	동: 부상천 서: 옥룡천 남: 부상천과 옥룡천 합수지점 북: 익산토성-금마도토성	외곽 산성
이신효 (2019)	동: 제석사지 서: 신동리유적 포함, 쌍릉 제외 남: 익산천과 부상천 합수지점 북: 익산토성-금마도토성 하단부	자연지세와 산성이 외곽

연구자 간 세부적인 차이는 있으나 왕궁리유적의 사방의 궁장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은 각각 약 2km를 기준으로 제석사지(동)와 쌍릉 구릉(서), 남쪽은 익산천(옥룡천)과 부상천이 합류하는 문철교 인근(약 1.9km), 북쪽은 익산도성이 축조된 시대산 전방(약 2.2km)을 도성의 범위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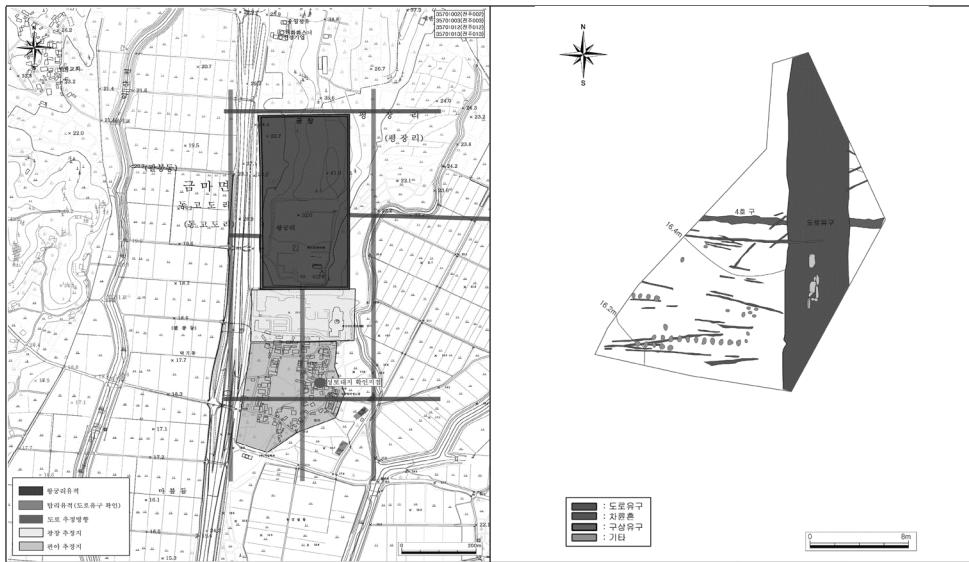


[그림 7] 익산도성 범위 추정안 ①박순발 案(2010) ②이경찬 案(2014)

그러나 익산도성의 가장 큰 약점은 확실한 조방제(都市 혹은 市街)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는 조방제는 도성의 충분조건이지 필수조건이 아니라는 견해도 제기하고 있다(이도학 2018: 220~221).

최근 사비도성의 조방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이병호 2003; 山本孝文 2005; 김낙중 2012), 도성 전체에 걸쳐 도로에 의한 획일적 적용보다는 도성 내부는 산지와 미구릉, 저지대로 복잡하게 이루어져 개발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김낙중 2012: 96). 그 근거로 쌍북리 현내들 유적의 도로유구에서 출토된 북제(北齊 550~577) 상평오수전(常平五銖錢)을 들어 일반인의 거주 구역 · 도로 · 추가적인 사원 건설 등은 천도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된 것으로 보고 있다(이병호 2002: 98~104).<sup>7)</sup> 또한 부여 능산리 · 가탑리 도로 하층에서 확인된 경작 유구 역시 천도 이후까지 사용된 것으로 밝혀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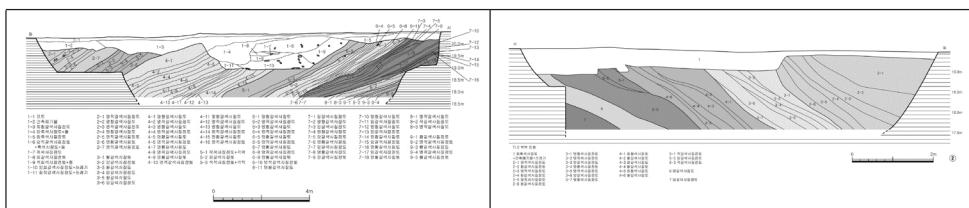
7) 이를 근거로 능산리 · 가탑리 도로 유구의 개통시기를 빨라도 6세기 중엽으로 보고 있다.



[그림 8] 왕궁리유적 주변 도로 추정 노선도(左) · 탑리유적 3호 도로(右) (김규정 2018: 36, 44 인용)

도성의 기반시설 확충이 천도 후에도 계속되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박순발 2010: 237~239). 따라서 익산지역 역시 사비도성과 같이 점진적인 개발이 진행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최근 왕궁리유적의 인근 탑리마을에서 왕궁과 동일한 남-북방향의 도로유구(전북문화재연구원 2018)와 성토대지층(김규정 2018: 34~35)이 확인된 바 있어 추후 이와 연관된 유구가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3호 도로는 길이 26m, 잔존하는 노면 폭이 4.9m 내외로 동쪽으로 연장될 개연성이 크며 노면은 하층에 천석을 넓게 깔고 그 위에 황갈색점질토를 채워 다졌다. 3호 도로는 궁성과 평행하게 개설된 것으로 보아 궁성 동쪽 외곽을 따라 남-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김규정 2018: 34~35).

탑리마을에서 확인된 성토층은 점토와 사질토를 사선방향으로 반복적으로 성토하였는데 구릉의 방향을 따라 북서-남동방향으로 성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적



[그림 9] 왕궁리 탑리마을 성토대지 토층도(左: 685 · 686번지, 右: 673번지) (김규정 2018: 48 인용)

인 성토방법이 왕궁 남성벽과 동성벽의 대지조성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어 왕궁의 조성시기와 같은 것으로 판단된다(김규정 2018: 47~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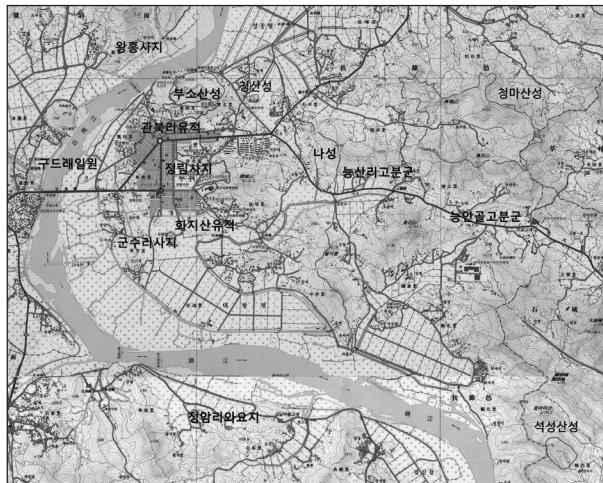
이와 같이 연구자간의 다양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익산 왕궁성은 동아시아 도성사에서 고대 궁성의 면모를 완전하게 간직한 유적이라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리고 주변의 미륵사지, 제석사지, 쌍릉 등은 국가의 중요시설임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 2. 금마지역의 방어체계

익산 금마지역의 왕궁을 비롯하여 주요시설을 방어하기 위한 이원적(二元的) 방어체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사비도성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하면 사비도성의 최대 특징은 성원(城垣)으로 구축된 외곽(나성)<sup>8)</sup>을 구비한 점이다(박순발 2014: 28).

즉 추정왕궁지인 관북리 유적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부소산성을 배치하고 서쪽과 남쪽은 금강(백마강)을 해자(垓子)로 활용, 북쪽과 동쪽으로는 구릉을 따라 6.3km에 이르는 나성을 축조하였다. 나성의 동쪽 외곽으로는 청마산성과 석성산성을, 그리고 백마강 남쪽 가림성을 축조하여 방사선 상으로 산성을 배치하였다. 결과적으로 서쪽의 금강을 해자로 삼고 동쪽의 자연구릉을 적절히 이용하여 나성을 축조하여 도성을 방비했음을 알 수 있다.

익산도성의 경우 처음부터 백제 도성의 전통에 따라 자연지형이나 산성 등을 활용하여 외곽을 만들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박방룡 2010: 115; 이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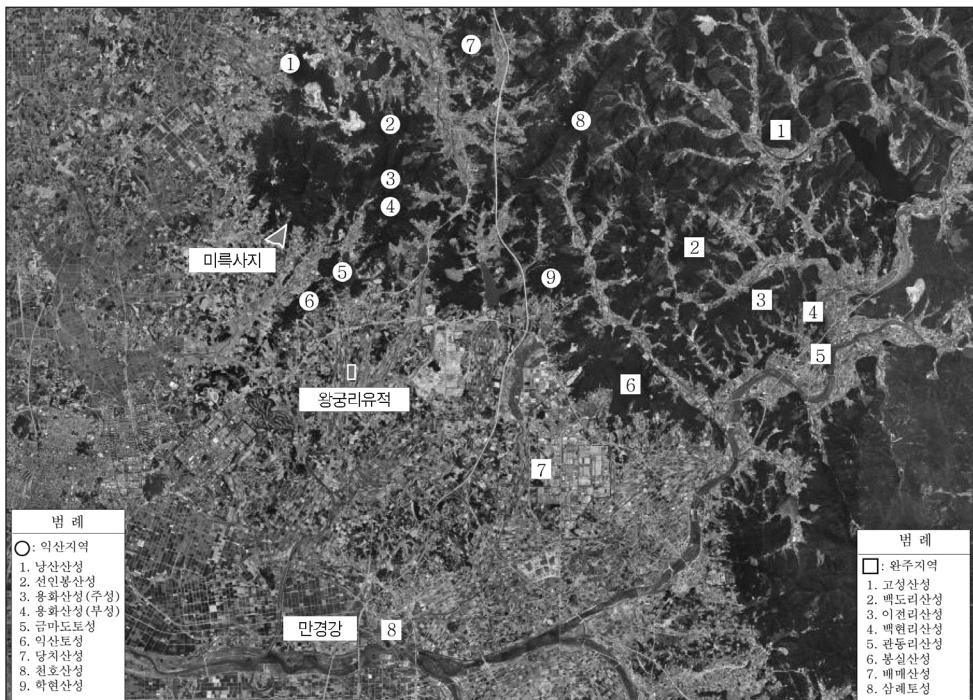
[그림 10] 사비도성의 나성 및 주요 유적(문화재청 2019: 31 인용)

8) 박순발(2014)은 사비도성 외곽을 '나성'으로 부르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2012: 78). 또한 왕궁과 미륵사가 위치하고 있는 금마를 중심으로 북쪽 산상에 외부와 연결되는 길목에 산성이 배치되고 있는 점을 들어 사비도성의 나성과 비견되는 외곽성으로 해석하기도 한다(최완규 2018: 12).

[그림 11]은 익산 금마지역을 중심으로 만경강 북서쪽 일대에 분포한 산성을 표시한 것이다.<sup>9)</sup> 대부분의 산성이 동쪽의 산악지대에 분포하고 있는데 이는 동쪽의 신라를 인식한 방어 차원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익산 금마지역 관내 산성의 분포 특징을 보면 미륵사지(미륵산)를 중심으로 북쪽의 낭산산성부터 시계 방향으로 선인봉산성-용화산성(주성 · 부성)-금마도토성-익산토성까지 방사상으로 배치된 특징을 찾을 수 있다(이문형 2016: 142). 이들 산성의 동쪽 외곽에 배치된 산성과는 달리 미륵사지를 중심으로 최근거리에 매우 촘촘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산성의 배치는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국찰(國刹)인 미륵사지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미륵사 축조 계획 단계에서부터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미륵사지의 종축선과 여타 왕궁을 비롯한 제석사지, 쌍릉 등 확



[그림 11] 익산 금마 및 완주 일대 주변 산성 분포도

9) 표기된 산성은 故전영래 석생의 조사에 의해 백제 시기로 비정되는 산성과 밤골조사를 통해 백제로 확인된 산성 들이나(전영래 2003).

연히 다른 종축선으로 축조되었기 때문이다. 즉 미륵사지(목탑지 기준)가 진북방향으로 약  $25.46^{\circ}$  동쪽으로 틀어진 반면, 여타 유적은 거의 진북에 가까운 남-북방향으로 축조되어 있다. 이에 대해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 일대의 조영이 하나의 도성계획 아래에서 조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시차를 달리하여 조성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이경찬 2014: 136). 대규모 역사(役事)인 점을 감안하면 시차를 달리하여 조성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미륵사지의 지형이 배수(뻘층 및 계곡)가 극히 취약한 곳을 택한 것으로 볼 때 종교적 차원의 전략적 결정이 더 크게 작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미륵사의 종축선이 다른 왕도시설과 크게 달라진 것이다. 미륵사의 3탑 3금당의 독창적인 가람배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륵사(산)가 당시 백제 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미륵사의 방어체계 역시 사전에 계획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미륵사의 중요성은 서탑의 해체과정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보물 제1991호)를 포함한 사리봉영기 등의 유물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즉 발견된 유물 등을 통해 당시 서탑의 사리봉영 의식은 백제 왕실을 포함하여 귀족, 관료 등이 참가한 국가적인 행사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삼원가람의 彌勒寺를 품은 산이 彌勒山, 인근의 龍華山까지 불교의 세계를 지상에 구현했으니 이로 보면 미륵사를 방어하기 위한 산성의 집중 배치는 당연한 결과이다.

미륵사를 중심으로 배치된 산성을 포함하여 동쪽 외곽으로도 비교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각각 독립된 시계(視界)를 구비하고 교통 요충지에 축조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산성의 전략적 배치는 위덕왕 25년(558)에 익산 낭산으로 비정되는 알야산성이 신라로부터 침공받은 사실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결국 이는 신라와의 관계에 있어 상대적으로 익산지역의 미륵산 동쪽지역 일대가 교통 요충지로서 중요했기 때문이다.

1872년 조선 후기 지방지도와 지형도를 바탕으로 금마·왕궁 일대의 3개의 교통로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첫 번째가 미륵사지와 웅포를 경유하여 부여로 가는 통로, 두 번째가 익산 향교를 거쳐 천호산성 인근을 경유하여 공주로 연결되는 육로, 마지막으로 왕궁리유적·제석사지, 만경강을 경유하여 무주-남원방면으로 이어지는 연결로가 확인되는데 그 중심의 결절지가 바로 금마지역이 해당한다(김규정 2018: 51). 또한 1915년 일제강점기 지적원도 분석을 통해 현 금마시가지로부터 미륵산과 용화산 지맥을 관통하여 낭산, 성당포구 인근을 지나 부여지역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고 익산지역 고대 성곽의 위치가 대부분 이들 루트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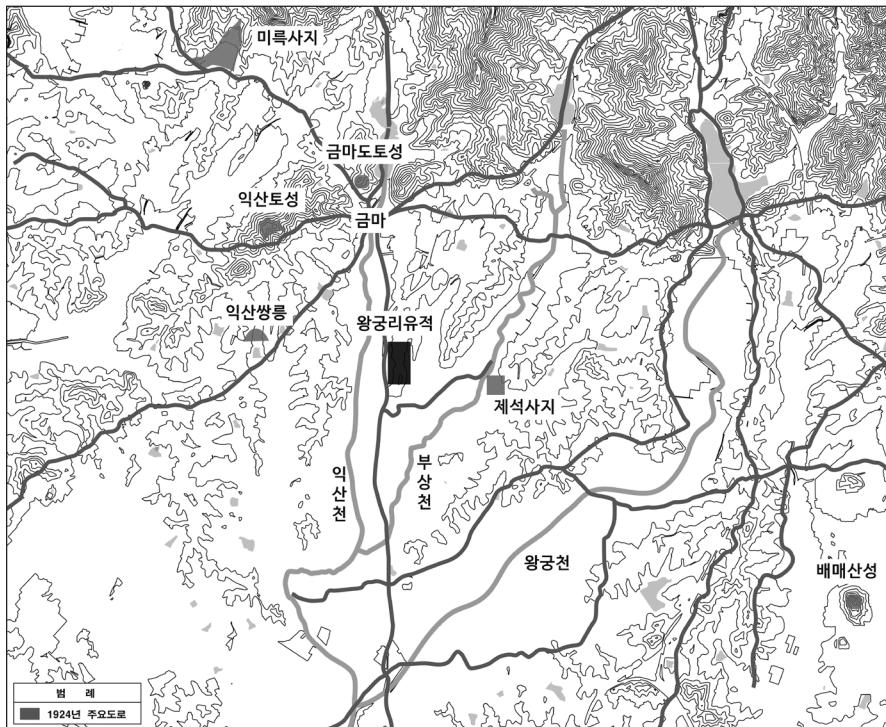
연결되는 지점에 분포하는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경찬 2014: 118). 실례로 1번 국도와 호남고속도로 주변 야산에 축조된 당치산성은 충남 논산과 강경으로 분기되는 지점에 축조되었으며, 학현산성은 충남 금산과 완주 고산을 넘어 전주까지 조망이 가능한 곳에 축조하였다(이문형 2016: 141). 그리고 오금산의 남서자락에 자리한 익산토성의 정상부에서는 東으로는 천호산, 西로는 함라, 南으로는 전주 모악산, 北으로는 미륵사지가 한 눈에 조망이 가능한 곳에 축조하였다.

종합해보면 익산 금마 지역의 북쪽은 미륵산과 용화산 등 동쪽에 자리한 야산의 정상부에 시계와 교통로를 중시하여 산성을 축조하여 미륵사를 방어하는 동시에 동쪽의 신라 침공에도 대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금마면 남쪽에 위치한 왕궁리 유적의 경우, 궁성에서 만경강에 이르는 약 8km 까지 남쪽 평야지대에는 배매산성(이격거리 6.3km)과 삼례토성(이격거리 7.8km)만이 확인되고 있어 전술한 미륵사지(산)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왕궁이 축조된 지형(해발 40m)은 금마면의 북동쪽의 산악지형과는 달리 저평한 구릉 및 평야지대로 상대적으로 적의 침입에 취약한 지형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사방의 조망이 탁월하고 또한 주변의 크고 작은 하천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궁성의 방어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추정된다. 왕궁리 유적을 중심으로 주변에 분포한 하천을 살펴보면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를 보면 금마면 동쪽 시대산에서 시작된 부상천은 제석사지를 거쳐 왕궁의 동쪽으로 흐르고, 금마면 소재지를 관통하여 남으로 흐르는 옥룡천(익산천)은 왕궁의 서쪽으로 흐른다. 이 두 하천은 왕궁의 남쪽 약 2km 지점에서 합수하여 익산천을 이룬다. 다시 익산천은 남류하여 왕궁천을 합수하고 서남쪽으로 약 4.7km 곡류하여 춘포에서 만경강으로 합류한다.

왕궁리 유적의 하천과의 친연성은 일찍부터 주목되어 왔는데 왕궁리 일대의 물과 관련된 지명과 만경강 제방이 완성되기 이전의 지형 등을 참고하여 만경강에서 왕궁 일대까지의 고대 수로를 복원하고 이를 통해 단순한 물자를 넘어 선진문물의 창구 역할로 해석한 견해가 있다(김삼룡 1976, 2003: 179~181). 또한 인근 주민에 의하면 도평(탑리)마을까지 배가 왕래한 이야기, 논을 경작하는 과정에서 배(船) 조각이 빨려된 이야기 등도 전해지고 있다(원광대학교 대안문화연구소 2013). 그리고 최근 왕궁리 유적의 서쪽, 익산천변의 덕기동 유적을 조사한 결과 현재의 하상보다 폭이 상당히 넓고 상당량의 모래층이 형성된 것으로 보아 하천 수량이 상당하였음이 확인되어(전북문



[그림 12] 익산 왕궁리유적 주변 하천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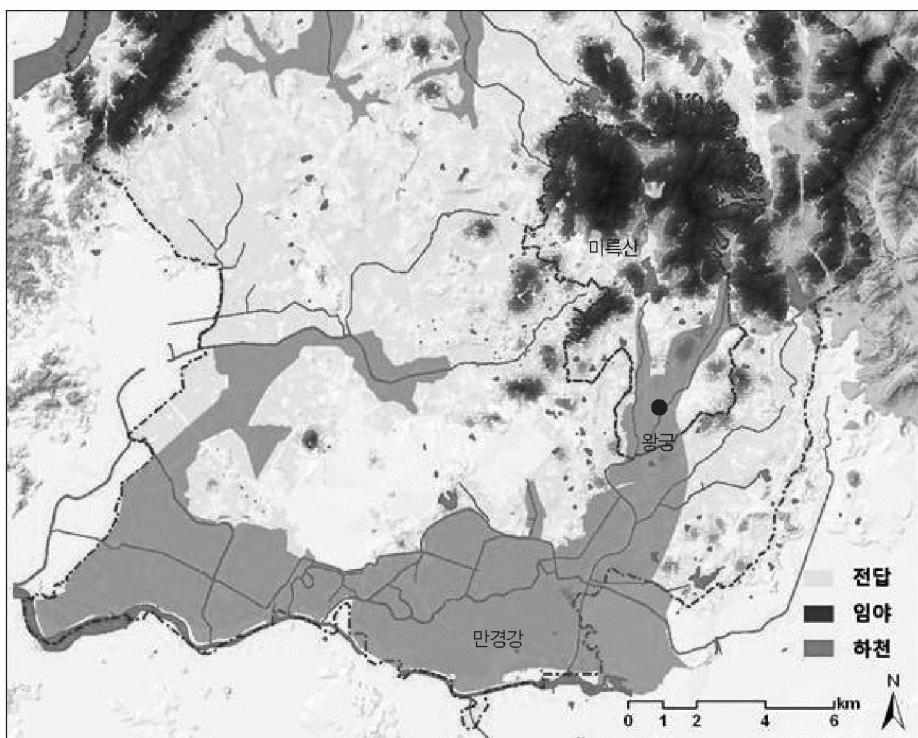
화재연구원 2019) 오늘날의 하천 지형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왕궁의 위치는 하천을 이용하여 궁성을 방위(防衛)하는데 유리한 자연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점을 근거로 익산천(서쪽)과 부상천(동쪽)을 내곽성(內郭城)으로 파악한 견해가 있다(최완규 2019: 27~28). 실제 백제 도성이 위치한 자연 지형을 보면 하천(강)을 효과적으로 이용한 것을 알 수 있다. 한성시기 풍납토성-한강, 웅진시기 공산성-금강, 사비시기 관북리유적(부소산성)-금강(백마강)과의 관계로 볼 때 익산의 왕궁리유적과 주변 하천 역시 이러한 연장선상, 즉 백제 전통의 왕궁(도성) 축조 입지조건에서 해석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특히 한성 이후 단행된 웅진과 사비 도성이 모두 금강 변에 위치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왕도로서 하천(수로교통)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sup>10)</sup> 결국 하천은 왕궁과 도심에 필요한 사

10) 웅진의 왕궁으로 비정되는 공산성의 경우 북쪽은 금강이, 서쪽으로 약 300m 떨어진 지점에 제민천, 동쪽으로 약 2.5km 떨어진 지점에 협저천이 흐르고 있다. 사비의 경우에는 부소산성의 동쪽을 세외한 삼면에 백마강이 굽이쳐 흐르고, 동북쪽에는 약 2km 떨어진 지점에 석목천이, 동쪽으로 역시 2km 떨어진 곳에 왕포천이 흐르고 있는데 이들 하천을 통과해야 도성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도성 주변의 강이나 하천은 대외교류, 물자수송 등의 교통로로 물론 적의 침입 시 방어시설(해자)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람 및 물자 수송, 대외교류의 창구는 물론 적의 침입시에는 해자 역할을 하게 됨으로 도성 건설에 있어서 시간이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익산의 왕성인 왕궁성의 방위는 가장 외곽의 만경강 본류가 1차 방어 선, 그리고 남쪽 궁장에서 약 3.8km 지점의 왕궁천이 2차, 최종적으로 부상천과 익산천이 3차, 즉 3중의 자연 해자를 통과해야 왕궁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왕궁리유적 백제 왕궁의 방어는 자연적인 하천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주변 조망이 가능한 배매산성(해발 121m)과 삼례토성(해발 38m) 등의 산성을 이용하여 취약한 부분을 보완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토축으로 축조된 배매산성은 백제 중앙세력에 의해 축조된 산성으로 백제가 만경강 상류지역을 직접 통치하기 위한 핵심거점 성곽으로 추정하고 있다(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20).



[그림 13] 1920년대 만경강 제방축조 이전 해수유입 추정도(익산시 2009: 24 인용)

그리고 현재 왕궁리유적에서 금마도토성 혹은 익산토성 사이의 공간적 범위, 특히 금마면소재지 일대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의 일정한 통제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 된다. 이는 현재까지 금마면소재지에서 백제와 연관된 그 어떠한 유구와 유물도 발견

되지 않는 점에 볼 때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금원(禁園) 구역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익산토성과 금마도토성은 사비도성의 부소산성의 성격과 같은 왕궁수비를 위한 금군(禁軍) 혹은 방어군의 주둔지, 또는 유사시에 피난성으로의 기능을 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박순발 2013; 최완규 2018). 실제 왕궁리유적의 북문지 북쪽으로 뻗은 구릉은 금마산(건자산)<sup>11)</sup>의 동쪽을 지나 금마도토성을 거쳐 익산토성으로 연결된다. 특히 익산토성은 최근 조사에서 ‘首府’명 인장와, ‘北舍’명 토기편이 출토되어 백제 왕궁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왕궁의 피난성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인접한 금마도토성은 규모 등으로 미루어 왕궁의 수비를 담당하던 금군이 배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진다.

종합해보면 백제 무왕시기 익산 금마지역의 방어는 이원적(二元的) 체계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즉 하나는 왕이 거처하는 왕궁을 방어하는 체계와 다른 하나는 정신의 거처인 미륵사를 방어하는 체계이다. 이 이원적 방어체계는 주변의 자연지형을 효율적으로 극대화하여 구축하고 계획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왕궁이 들어선 왕궁리유적은 전통의 하천을 이용하였으며, 미륵사는 동쪽 산지를 활용하여 조망과 교통로 상에 산성을 배치하여 방어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와 같은 이원적 방어체계는 익산토성을 통하여 단절되지 않고 상호 보완적으로 연결시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왕궁의 피난성으로 추정되는 익산토성의 북쪽으로는 미륵사와 연결되는 교통로가 확보되어 있다. 즉 왕궁의 북쪽 일대를 금원지역으로 설정하여 일반인들의 출입을 차단시킴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피난성인 익산토성과 연결시키고 미륵사를 가시권에 둠으로서 이원적 방어체계의 효과를 극대화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11) 남미지역의 지리적인 조건과 왕궁이 건설된 지점은 풍수지리적인 관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곳에 해당된다고 한다. 즉 북서쪽 조산에 해당하는 곳이 미륵산, 북동쪽 소조산이 용화산, 그리고 주산으로서 진지산을 들고 있다(최완규 2019: 15~18).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금마산은 건자산(乾子山)으로 군의 북쪽에 있는 진산(鎭山)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대동여지도(익산)』에는 ‘乾子川’ 『1872년 지방지도』에는 ‘乾支山’으로 표기되어 있어 禁園으로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 V. 맷음말

익산 천도 사실이 기록된『觀世音應驗記』의 발견 이후 백제사 전면에 등장한 익산 금마지역은 백제 제30대 무왕(재위 600~641)때 조성된 왕도유적의 계획적인 조사를 통해 ‘益山遷都’ 실체에 더욱 다가서고 있다.

현재 익산 금마지역에는 궁성인 왕궁리유적을 비롯하여 국가사찰인 미륵사지와 왕실사찰인 제석사지, 그리고 왕릉인 쌍릉과 익산토성으로 대표되는 관방유적까지 고대 왕도(王都)로서의 핵심유적들이 분포하고 있다. 이들 유적을 중심으로 익산도성의 범위는 대체적으로 왕궁의 궁장을 기준으로 사방 약 2km 내외를 도성의 범위로 보고 있으며, 최근 왕궁리유적의 인근 탑리마을에서 왕궁과 동일한 남-북방향의 도로유구와 성토 대지층이 발견되고 있어 향후 도시(市街)와 연관된 유구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현재까지 익산지역 관내에는 모두 12개소의 고대 관방유적이 알려져 있다. 그 분포를 보면 금강하구 연안의 함라산 일대와 관내 동쪽 금마면 일대로 양분되어 집중하고 있다. 금강연안의 산성은 서해에서 금강을 통해 내륙으로 출입하는 수로 상의 요충지에 축조되어 있으며, 금마지역 일대의 산성은 미륵사지(미륵산)를 중심으로 방사상으로 둘러싸며 분포하고 있다. 반면 왕궁리유적 주변으로는 토성(산성) 등 의 적극적인 방어시설이 축조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인근 익산천과 부상천 등의 하천을 해자로 삼아 왕궁 등의 시설을 방어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익산 금마지역의 산성 분포와 왕궁리유적 주변 하천의 위치 등을 종합해 볼 때 익산 금마지역의 방어는 ‘왕궁’과 ‘미륵사’ 이원적 방어체계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다. 즉 왕이 거처하는 왕궁 방어 체계와 미륵사의 방어체계이다. 이상의 이원적 방어체계는 면밀한 계획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주변의 자연지형을 효율적 이용하여 극대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왕궁리유적과 미륵사에 이르는 사이의 공간적 범위(금마면소재지 일대)를 금원으로 설정하여 국가 차원의 일정한 통제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왕궁이 축조된 왕궁리유적은 전통의 입지 조건에 부합하는 하천을 적극 활용하였으며, 미륵사는 동쪽 산맥을 활용하여 조망과 교통로 상에 산성을 배치하여 방어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와 같은 이원적 방어체계는 단절되지 않고 상호 보완적으로 연결시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연결점은 최근 발굴조사에서 관북리유적-부소산성(왕궁-피난성)에서 출토된 바 있는 ‘首府’명 인장와, ‘北舍’명

토기편이 출토된 익산토성이다. 익산토성 역시 왕궁리유적의 피난성으로 추정되며 토성의 북쪽으로 미륵사와 연결되는 교통로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왕궁의 북쪽 일대를 금원지역으로 설정하여 일반인들의 출입을 차단시킴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피난성인 익산토성과 연결시키고 미륵사를 가시권에 둠으로서 이원적인 익산 금마지역 방어체계의 효과를 극대화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이 논문은 2020년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서 주관한 「미륵산성과 금마도토성의 사적지정 방안」 학술회 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투고일 2020. 12. 29 | 심사완료일 2021. 1. 27 | 개재확정일 2021. 2. 2

## 참고문헌

- 국립의산박물관, 2020,『국립의산박물관』.
- 김규정, 2018,「최근 조사된 도로유구와 왕궁성의 연관성」,『최근 고고학 성과로 본 백제왕도 익산』, 고도익산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학술회의 발표자료집,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 김낙중, 2012,「일본 도성체의 구조·성격과 백제 도성체와의 비교」,『백제 도성체와 주변국 도성체의 비교연구』, 백제 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추진단 발표자료집, 충청남도역사문화원.
- 김병남, 2002,「백제 무왕대의 영역확대와 그 의의」,『한국상고사학보』38, 한국상고사학회.
- 김삼봉, 1976,『古代益山地域水路考』,『論文集』제9집, 원광대학교.
- \_\_\_\_\_, 2003,「백제시대 있어서 익산문화-수로교통로를 중심으로-」,『익산의 선사와 고대문화』,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 김선기, 2012,『益山金馬渚의 白濟文化』, 서경문화사.
- 김주성, 2009,「백제 무왕의 대야성 진출 기도」,『백제연구』49,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牧田諦亮, 1976,「백제 益山遷都에 대한 文獻資料」, 제3회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학술회의 발표자료집.
- 문안석, 2006,『백제의 홍망과 전쟁』, 혜안.
- 문화재청, 2019,「백제왕도 핵심유적 부여지역 발굴조사 마스터플랜 수립 보고서」.
- 박방웅, 2010,「백제 익산 왕도의 성립과 위상」,『마한·백제문화』제19집,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 박순발, 2010a,『백제의 도성』, 충남대학교 출판부.
- \_\_\_\_\_, 2010b,「익신 도시 구조와 미륵사」,『백제 불교문화의 보고 미륵사』, 학술심포지움 논문집, 국립문화재연구소.
- \_\_\_\_\_, 2013,「사비도성과 익산 왕궁성」,『마한·백제문화』제21집,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 \_\_\_\_\_, 2014,「동아시아 도성사에서 본 백제도성」,『고대 동아시아 도성과 왕궁성』上,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 山本孝文, 2005,「백제 사비도성의 관료와 거주·공간·경역과 매장지의 분석을 중심으로」,『고대도시와 왕권』,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심정보, 2004,『백제 신성의 이해』, 주류성.
- 원광대학교 대안문화연구소, 2013,『익산 구술사 - 금마면·여산면·왕궁면·춘포면·함열읍-』.
-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81,『報德城發掘報告書』.
- \_\_\_\_\_, 1985,『益山五金山城發掘調查報告書』.
- \_\_\_\_\_, 1986,『불교문화유적-성곽』,『익산군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 \_\_\_\_\_, 2001,『益山山城-동문지주변발굴조사보고서-』.
- \_\_\_\_\_, 2009,『익신역사유적지구』.
- \_\_\_\_\_, 2016,『익산의 성곽』.
- \_\_\_\_\_, 2018,『이산도성(사적 제92호) 문화재 시·발굴조사 약보고서』.
- 원광대학교박물관, 2008,『彌勒山城-건물지 및 남문지 발굴조사보고서』.
- 유원재, 1999,「백제사에서 익산문화유적의 성격」,『마한·백제문화』14집,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 이경찬, 2014,「백제 후기 이산 왕궁리유적의 도시계획사적 의미」,『고대 동아시아 도성과 왕궁성』上,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 이도학, 2018,「왕성으로서의 익산 왕궁평성 건증」,『백제도성연구』, 서경문화사.
- 이문형, 2016,「익산지역 고대 성곽의 분포현황과 특징」,『馬韓·百濟文化』제28집,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 이병호, 2002, 「백제 사비도성의 조영과정」, 『한국사론』47.
- \_\_\_\_\_. 2003, 「사비도성의 구조와 유형」, 『한국의 도성-도성 조영의 전통』,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 이신호, 2012, 「백제 왕도속의 익산」, 『백제 왕도속의 익산』, 익산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추진 국제학술회  
의 발표자료집.
- \_\_\_\_\_. 2019, 「백제의 고도, 익산의 도성과 왕궁」, 『마한·백제문화』제32집,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 익산시, 2009, 『익산 고도보존계획』.
- 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20, 『완주 배매산성』-서성면 2차 발굴조사-.
- 진북문화재연구원, 2008a, 『益山 朗山山城-南門址 發掘調查 報告書』.
- \_\_\_\_\_. 2018b, 『익산 탑리·덕기동 유적』.
- \_\_\_\_\_. 2019, 「덕기동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 진영래, 2003, 『전북 고대산성조사보고서』, 한서고대학연구소.
- 차용길, 2003, 「익산 城郭유적과 그 성격」, 『익산의 선사와 고대문화』,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 최완규, 2018a,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 확장 내상 유적의 가치」,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확장 등재  
검토』,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3주년 국제학술대회 발표집.
- \_\_\_\_\_. 2018b, 「최근 고고학 성과로 본 백제왕도 익산」, 『최근 고고학 성과로 본 백제왕도 익산』, 학술회의자  
료집.
- \_\_\_\_\_. 2019, 「백제도성과 익산」, 『마한·백제문화』제34집,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08, 『百濟史資料擇要集』.
- 황수영, 1973, 「百濟 帝釋寺址의 研究」, 『百濟研究』4,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The Defense System in Iksan Area during the Period of King Mu in Baekje

Lee, Moon-Hyoung(Senior Researcher, Mahan-Baekje Cultural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ity)

In 「the Sections of Geography (地理志)」 of 『the Chronicles of the Three Kingdoms (三國史記)』, Geumma area of Iksan is recorded as Gemmajeo (金馬渚) of Baekje, while tales of the 30th King Mu in Baekje have been passed down in 「the King Mu Section (武王條)」 of 『the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三國遺事)』. Besides, ‘an article concerning transfer of the royal capital to Iksan (Geumma)’ is contained in 『Gwanseeumeunghemgi (觀世音應驗記)』, which has not been dealt with in any other domestic history books. Unlike such fragmentary records as these, important ruins like royal palaces, national (royal) temples, royal tombs, and government halls, which were the core facilities of the royal capital during the period of King Mu in Baekje, are distributed throughout Geumma area. It is the objective of this paper to examine the defense system of Iksan Geumma area by means of the relatively unresearched ruins of government halls among the remains in it.

In Chapter Ⅱ, the documentaries of wars against Silla (13 episodes) which definitely attracted special attention in the foreign relat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during the 42-year reign (600~641) of King Mu were reviewed through the 「Main Part of Baekje's Historical Records (百濟本紀)」 in 『the Chronicles of the Three Kingdoms』.

Chapter Ⅲ reviewed the distributional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ruins of

government halls in Iksan area. From the review, it was confirmed that the ruins of ancient government halls in Iksan area are concentrated in the districts bisected by the mountainous areas in the Minor Chain of Geumnam Mountains as well as by the areas of Mts. Hamrasan and Mireuksan along the coast of Geumgang River estuary. Particularly in case of Iksan Earthen Fortress (Ogeumsan Mountain Fortress), it is presumed to have played a role as a “refuge castle” of the royal palace according to the relics which were recently excavated and investigated.

In Chapter IV, it was made certain that, judging from distribution of the fortresses in Iksan Geumma area and from location of the streams around Wanggung-ri ruins, Iksan area could be protected by the dual defense system with a focus placed on ‘Wanggung (Royal Palace)’ and ‘Mireuksa Temple’. In other words, it was the defense system for the royal palace where kings resided and for Mireuksa, the national temple. Such dual defense system as described above is believed to have been worked out under careful planning and to have maximized its function by efficiently utilizing the natural conditions of surrounding terrains. Moreover, it is also estimated that the spatial range (in the area of Geumma-myeon) between Wanggung-ri ruins and Mireuksa Temple was designated as a kind of forbidden garden (禁園) to enforce a certain level of national control.

In conclusion, it can be said that Wanggung-ri ruins, where the royal palace was built, made active use of the surrounding streams which could satisfactorily meet the locational requirements from a traditional sense, and a defense system was constructed for Mireuksa Temple by constructing fortresses on the traffic routes and using the eastern mountain range for the benefit of view as well. This kind of dual defense system turned out to maximize its effects by linking each other complementarily, not by disconnecting. The connection point with this conclusion is Iksan Earthen Fortress (Ogeumsan Mountain Fortress) in which a seal inscribed with ‘Government Location (首府)’ and fragments of earthenware with inscription of ‘Northern Residence (北舍)’ were discovered from a recent excavation. A seal of the same type was once unearthed from Gwanbuk-ri ruins-Buso Mountain Fortress (royal palace-refuge castle) in Buyeo. Iksan Earthen

Fortress is also believed to have been a refuge castle for Wanggung-ri ruins, and there is a traffic route connected to Mireuksa to the north of the fortress. In short, it may be interpreted that the effect of the dual defense system of Iksan area could be maximized by specifying the northern part of the royal palace as a forbidden district, blocking the access of the general public and, by so doing, connecting Iksan Earthen Fortress as refugee castle with the royal palace, eventually placing Mireuksa Temple in the visible range and winning the maximum effect of the defense system for Iksan area.

**Key words : King Mu, Iksan area, defense system, Wanggung-ri ruins, Mireuksa Temple site (Mt. Mireuk)**

